

## 1 개요

호근이믄르 으드렛당본풀이는 안덕면 감산리 여드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이씨할망은 훈장의 딸로 태어나 오좌수를 만나 정분을 나누었으나, 첩이어서 설움을 받다가 죽은 뒤에 당 올레에 묻혀 오씨 집안 사람들이 주로 모시는 당신이 되었다.

## 2 내용

이씨할망은 조천 이훈장의 딸로 태어났다. 아기씨는 일곱 살에 신병 든 것이 열다섯이 되자 집을 떠나 동냥하면서 돌아다녔다. 정윳골[旌義縣]로 갔다가 호근믄을[好近里] 오좌수(吳座首)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는 축첩(蓄妾)을 아니하는 때여서, 오좌수가 몰래 집으로 도망가버렸다.

아기씨는 수소문하다가 호근리(好近里) 오좌수의 집을 찾아갔다. 큰부인이 남의 처녀 신세를 망쳤으니 살 도리를 마련해주라고 해서, 울타리 바깥에 집을 짓고 아기씨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다시 3년이 지나 오좌수가 죽으니, 오좌수 큰아들은 양반(兩班) 집에 축첩하였다고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아기씨는 끝내 신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당에 온 사람에게 서숙이나 얻어먹고 행세(行勢)하라.”며 아기씨를 당올레에 묻었다. 이리 하여 이씨할망은 오씨(吳氏) 집마다 흉험(凶險)을 주고 제향을 받았다.

## 3 특징

이씨할망은 어려서부터 신병을 앓다가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나쁜 운을 이겨내고, 다시 남자를 만나 인연을 맺었으나 거듭하여 버려지는 설움을 당하였다. 끝내는 당신이 되었으나 남자 집안의 자손들로부터 제향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대체로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 4 핵심어

조천, 이훈장, 이씨할망, 축첩, 정윳골, 호근리, 호근믄을, 오좌수, 양반, 당올레, 안덕면 감산리, 여드렛당

## 5 원전 서지사항

호근이믄르 으드렛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6 관련 자료